

아시아의 의료 허브, 싱가포르

현재 한국 의료는 깊은 수렁을 헤매고 있다. 의약분업의 후유증이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포괄수가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는 또 한 차례 소모적인 파동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은 막대한 세금 투입과 보험 가입자 혜택 감소로 그 위기를 넘겼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건강보험이 국민건강을 보장한다기보다는 역설적으로 사회보험제도 자체를 보장하는 제도로 비쳐진다.

글 ·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래플즈병원(Landscape Garden)



의료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명분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고령화 시대의 늘어나는 의료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은 급여 확대는커녕 의료보험으로서의 기능도 점차 잃고 있는 상태이다.

밖으로는 의료시장 개방을 목전에 두고 거대 의료자본과 선진 의료 마케팅이 한국 시장을 밀도 있게 저울질 하고 있다. WTO개방 협상에서 중국이 한국 의료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선진국의 대규모 의료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 의료 환경을 선진화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한국 의료 시장에 진출을 모색할 태세이다.

이처럼 안팎으로 한국 의료는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보건의료정책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공공성 확보만을 화두로 삼고 있으며, 한국 의료 환경을 국제 기준에 맞게 어떻게 선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눈에 띠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 의료시스템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싱가포르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표준의료와 고급医료를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자국민의 의료보장은 물론, 아시아의 의료 허브(Hub·중심축)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싱가포르 의료시스템과 의료산업을 필자가 싱가포르를 방문한 취재기를 바탕으로 알아본다.



래플즈병원 식사 장면

민간의료는 민간이, 공공의료는 정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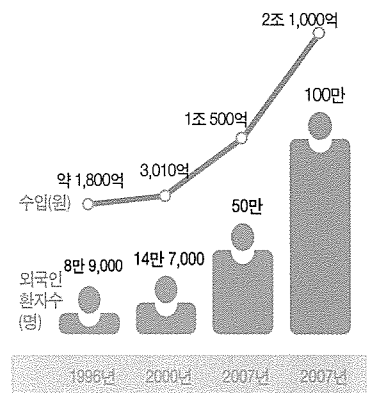
싱가포르에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국·인도·중동지역 등 한 해 외국인 환자 20여만 명이 싱가포르제(Made in Singapore) 의료를 찾아 몰려오고 있다.

지난해에만 외국인 환자 유치로 5억 싱가포르달러(35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으며, 2012년까지는 30억 싱가포르달러(2조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다(〈그림 1〉 참조).

세계적인 제약회사들도 앞 다투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판매할 의약품 공장을 싱가포르에 짓고, 신약개발 연구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오는 2010년까지는 세계 15대 생명공학 기업을 모두 데려오겠다는 것이 싱가포르 정부의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이 같은 도약(跳躍)은 자원과

〈그림 1〉 싱가포르 의료허브 현황과 전망



자료: 싱가포르 보건부.



래플즈병원 전경

(HSWG)을 만들었다. 여기서 10년 후 어떻게 하면 싱가포르를 아시아 의료 허브로 만들 수 있는 지 전략을 수립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의료발전 10개년 계획이라고 보면 된다. 이 위원회는 보건부 소속이 아니다. 재정 경제부에 속해 있다. 위원회가 세운 전략의 요점은 싱가포르 재정부 홈페이지(www.mti.gov.sg)에 가면 열람할 수 있다. 워킹 그룹의 위원장은 삼쌍동이 분리수술로 유명한 래플즈병원장이 맡고 있다. 민간병원 원장에게 국가 발전 전략을 세우도록 위임한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민의 75%에 대한 표준적 의료서비스는 국·공립병원에서 담당케 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없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민간병원은 금융기관이나 일반 투자자가 소유 지분에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이들 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서비스 경쟁에 사활을 건다. 환자가 오면 담당 직원이 공항에 마중을 나가고, 치료가 길어지면 체류 허가 기간도 병원이 알아서 연장시킨다. 모든 의료서비스는 Five Star(별 다섯 개) 호텔 기준으로 제공되며, 입원은 체크인(Check In)이고, 환자 불편 신고센터가 아니라 고객 서비스(Client Service)센터다.

1000병상의 민간병원그룹 파크웨이(Parkway)가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등으로 올린 수입은 3억2,500만 싱가포르달러(약 2,275억 원). 이는 국내 1600여 병상 서울대병원의 연간 총진료비 수입을 웃도는 수치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한 세계 굴지의 제약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르마 제약단지'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과 는 제조업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정부와 국가 지도자의 수십 년 앞을 내다보는 지혜에서 비롯됐다.

고축통(吳作棟)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고(高)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와 생명과학산업만이 미래의 싱가포르 경제를 먹여 살릴 것이다”라고 외치며 싱가포르를 32억 아시아인의 ‘의료 허브’로 이끌어가고 있다. 첨단 과학의 집약체라는 의료산업의 발전이 다른 정치적 리더십의 미래 예측 능력과 결단·추진력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바로 싱가포르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해 각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헬스케어 서비스 워킹 그룹

Si

와 '사이언스 리서치 파크'를 조성했다. 그러나 미국의 머크는 공장과 연구소를 짓기 위해 5년간 6300억 원을 투자했으며, 다국적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아시아에 판매되는 천식약 제조를 위해 960억 원을 투자했다. 생명과학 어느 분야에 정부 산하 연구비를 지원하고 투자를 유치할 것인지 결정하는 생명과학 발전 위원회에는 영국의 생명과학 석학을 데려왔다. 즉, 한 나라의 생명과학 정책 결정의 핵심 자리에 외국인을 앉힌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민간에서 이뤄질 부분은 철저히 민간에게 위임한다. 반면 정부는 공적으로 확보에 치중한다. 싱가포르는 자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싱가포르 국민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는 '메디세이브' (Medisave · 의료저축제)에 소득의 6% 이상을 적립한다(한국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약 4%).

이 돈은 중앙후생기금(CPF)에 모여 의료보험 급여로 쓰이지만 적립금액은 개인 계좌로 등록되어 본인의 자산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병원을 적게 이용해 적립액이 남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들이 사소한 증세에도 병원을 찾아 의료비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적립액이 일정 상한선을 넘으면 그 돈을 주택대출금 상환이나 채권 투자 등 수익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가족간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메이세이브' 예금을 부모·조부모 등 직계가족의 의료비용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상한선 범위 내에서 예금을 민간병원 이용에도 쓸 수 있다. 하지만 예금을 개인의 원 외래 이용에는 쓸 수 없다. 개인의원을 이

용할 때에는 사(私)보험으로 지불하거나 개인 돈을 내야 한다. 의료비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입원 치료의 80%는 국·공립병원에서 이뤄지고, 외래 치료의 80%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암(癌) 등 중증 질병 치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메디실드' (MediShield)라는 선택형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도 '메디세이브' 예금을 쓸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런 '메디세이브'와 '메디실드'를 모두 소진한데다가 직계가족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 세금으로 '메디펀드' (Medifund)를 창설했다.

이렇게 하여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의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소득 증가에 따라 '메디세이브'에 여유가 생긴 계층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고급 의료서비스를 찾아 민간병



레플즈병원 벨보이

원을 이용할 수 있다. 민간병원은 그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창출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찾아 미국 등 외국으로 나가는 환자는 없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말이다.

민간의료는 거의 대부분 개인 의사나 그룹 클리닉 의사들에 의해 운영되지만 정부나 국·공립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인 클리닉을 할 수 있다. 즉 대학교수도 일정 자격이 주어지면 개인의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는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쌓은 대학교수 의사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개업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이런 유연한 제도 운영이 대학교수들을 더욱 연구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국가 차원에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세계적인 초일류 병원을 적극 유치한다. 병원과 연구소 건물이 밀집한 싱가포르 국립대 의대 캠퍼스 대학병원 8층에 들어서면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평가받는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병원의 인터내셔널 메디컬 센터가 있다.

이 병원은 항암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5년 전 싱가포르 정부가 이곳에 유치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 국립대병원 병동 하나를 통째로 내주었고, 4개의 생명과학 분야 연구소를 제공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병원 한 병동을 미국 병원에 내준 셈이다. 70여억 원의 연구비는 별도로 지원됐다.

존스 홉킨스 병원이 미국 지역 밖에서 최초로 세워진 덕분에 싱가포르에서는 미국 최고 병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 암치료법이

동시에 이뤄진다. 종양내과 의사는 본원이 있는 미국 볼티모어에서 파견된다. 모든 암 환자는 국립대 의대 의료진과 볼티모어 의료진 간 수시로 이뤄지는 영상회의를 통해 치료 방침이 결정된다. 국립대 의대생들도 존스 홉킨스 의대 커리큘럼을 그대로 받아 배우고 있다.

존스 홉킨스 의대가 개설한 연구소는 내년부터 이곳의 박사학위 과정을 미국 본토 학위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 일대에서 우수한 과학도의 입학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존스 홉킨스 병원 유치로 얻어진 이득이 생명과학 분야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존스 홉킨스 싱가포르 로런스 패트릭(Lawrence Patrick) 행정 국장은 “우리 병원이 여기에 있는 것 자체로도 싱가포르 의료의 명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서 드문 질병이나 아시아인에 대한 생명과학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와 존스 홉킨스가 서로 윈-윈(Win-Win) 전략을 세워 성공한 것이다. 이곳에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근무를 희망하는 차이나이즈 아메리칸 의사들이다. 따라서 우수한 의료진의 싱가포르 유입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존스 홉킨스 싱가포르는 내년에 병동 하나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 내 민간병원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환자를 활발히 끌어올 수 있도록 자유로운 병원 투자와 마케팅을 허용하고 있다. 오차드 거리 중심에 위치한 병원 기업 아시아메디의 영상의학센터는 최근 70억 원의 투자를 받아 들여온 최첨단 암 진단장비 PET·CT를 가동했다. PET·CT는



래플즈병원의 삼쌍둥이 수술 장면

전신에 있는 0.5cm 이하 초기 암도 찾아내는 정밀 방사선영상장비로, 이 기종이 미국 밖에 설치되기는 이곳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병원이 영리 목적의 투자를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도미니크 에르(Dominic Er) 소장은 “동남아시아 일대를 대상으로 암진단 마케팅에 나선 것”이라며 “벌써부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병원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과의사인 그는 즉석에서 “한국에서 환자를 보내주면 호텔과 항공료는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비즈니스 마인드로 푹푹 뭉쳐 있었다. 이 병원은 PET·CT 진단의 세계적인 석학인 로드 히스(Rod Hicks) 교수를 호주 멜버른 암 센터에서 데려와 고용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히스 교수의 연구 실적만 보고 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싱가포르 의사 면허를 부여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의사가 학술·교육 목적 이외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PET·CF 가동을 위해 호주에서 7명의 의료진과 기술진을 데려오기도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같은 다양한 전략으로 2007년까지 외국인 환자 50만 명을 유치하고, 2012년에는 100만 명을 받아들여 2조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관광청은 의료 마케팅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오차드 거리 한복판에 위치한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 2층 노른자위에는 재패니즈(Japanese) 클리닉이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코디네이터(진료 도우미)가 환자를 맞는다. 3만여 일본인 관광객과 상주인을 대상으로 개설한 클리닉이다.

일본인 의사 오니시 요이치(大西洋一)씨는 “피부미용이나 성형수술 받는 일본인 관광객 환자를 주로 본다.”며 “일본과 비교해 치료 수준은 똑같지만 치료비는 저렴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그에게도 일본인 환자만 본다는 조건으로 3년간 싱가포르 의사 면허를 줬다.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부총리는 지난해 삼쌍둥이 분리수술로 유명해진 래플즈 병원 설립 1주년을 맞아 격려차 방문, “래플즈가 싱가포르 의료 발전 모델을 이끌어 가고 있다”며 병원을 지켜세웠다. 2년 전 병원이 문을 연 날에는 보건부 장관이 와서 축하를 하고 갔다. 우리나라로 치면 개인병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와서 수익을 많이 내라고 의료진을 격려한 셈이다.

이 병원이 지난 7월, 이란 삼쌍둥이 분리수술에 실패했을 때는 고축통(吳作棟) 총리가 직접 의료진에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편지를 쓰기도 했다. 🐦

다음호에 계속